

# 지난해 전남 귀농인 10명 중 8명 '나 혼자 산다'

## ■ 귀농인 생계 작물 현황

채소 39.8%	논벼 34%
과수 27.1%	특용 20.3%
자기 소유 농지 59.8%	
자경+임차 7.2%	
순수 임차가구 33.0%	



## 호남통계청 귀농·귀어·귀촌인 현황...17개 시·도 중 두번째로 많아 최다 작물 '채소' 1인당 0.32ha 경작...최고 인기 정착지는 고흥군

지난해 전남으로 귀농한 '귀농인' 10명 중 8명은 '1인 가구'로 나타났다. 이들이 가장 많이 재배하는 작물은 채소였고, 1인당 평균 0.32ha를 경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남으로 귀농을 택한 이들은 80%가 외지인으로, 가장 인기 있는 정착지는 고흥군이었다.

2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인생2막 통계로 본 귀농·귀어·귀촌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966가구, 1987명이 전남으로 귀농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경북(2530가구)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귀농가구가 많았다.

지난해 귀농가구 형태를 살펴보니 80%(1572가구)가 혼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인 가구는 14.5%(286가구), 3인 가구는 3.2%(62가구), 4인

이상은 2.3%(46가구)였다.

전남에 정착한 귀농인들이 생계로 선택한 작물은 채소(39.8%)가 가장 많았고 이어 논벼(34%), 과수(27.1%), 특용(20.3%) 순이었다.

새내기 귀농인들의 평균 경작 규모는 0.32ha로 비교적 적었다. 0.5ha 미만인 87.2%로 대다수였고, 0.5~1ha 미만(9.4%), 1~2ha미만(2.3%), 2ha 이상(1.0%) 순이었다.

작물을 재배하는 귀농인의 59.8%는 자기 소유 농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순수 자경가구'였고, '자경+임차가구'는 7.2%, '순수 임차가구'는 33%였다.

지난해 전남으로 귀농하면서 축산업업 선택한 이들은 한우와 꿀벌 사육을 선택했다. 전체 32개 가구 가운데 53.1%(17가구)가 한우를, 11가구

(34.4%)가 꿀벌을 사육하고 있었다.

귀농가구의 평균 연령은 53세였다. 60대가 36.8%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9.4%였는데, 30대 이하도 16.4%를 차지한 점이 눈에 띄었다. 성비는 남성 62.3%, 여성 37.7%로 조사됐다.

귀농인들의 지역별 이동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남 귀농인 10명 중 8명은 전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유입됐다.

전체 83%가 '시도 간 이동'에 해당했고, '시도 내 이동'이 17%, '시군 간 이동'은 11.9%였다.

시도 간 이동에 해당하는 귀농 전 거주지역은 광주가 37.5%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전남 17%, 경기 15.8%, 서울 13.5%, 인천 4% 등이 뒤를 이었다.

귀농인들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지역은 고흥군으로 234명이 정착했다. 뒤이어 무안 173명, 보성 615명, 나주 158명이었다.

지난해 2977구는 전남 바다를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총남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귀어 가구 수를 기록했다.

귀어인은 311명으로 역시나 1인 가구가 80.1%로 가장 많았다. 남성은 69.8%, 여성은 30.2%였다.

전남 귀어인 평균 연령은 53.2세였으며 50대(35.4%), 60대(27%), 40대(17.4%), 30대 이하(14.5%) 순이었다.

전남으로 귀어한 이들의 과거 거주지는 전남이 32.5%로 가장 많았다. 광주는 18.3%였고 경기 16.7%, 서울 11.9%, 인천 5.8%였다.

농촌에 정착했으나 농업에는 종사하지 않는 전남 귀농·귀어인 2만9864가구를 조사했다.

이들의 귀촌사유를 살펴본 결과 '직업' 때문이라는 응답이 3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족(27%), 주택(24.1%) 순으로 많았고,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이라고 답한 이들도 각각 6.2%, 2.8%나 됐다.

귀촌인 평균 연령은 46.1세로 남성이 52.6%, 여성이 47.4%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기업 83% 추석 6일 휴무·63% 상여금 지급

## 경총 추석 휴무 실태 조사...45% 경영실적 악화 전망

6일간 이어지는 올 추석 연휴에 휴무를 시행하는 기업 10곳 중 8곳이 연휴 전체를 휴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5인 이상 706개 기업을 대상으로 올 추석 휴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96.2%가 휴무를 시행하며 이 가운데 82.5%가 6일간 휴무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11.6%는 4일 이하, 3.2%는 5일의 휴무일을 운영한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은 연휴 중 근무일을 둔 이유로 '일감 부담은 크지 않으나 납기 준수 등

근무가 불가피하다' (46.6%)를 가장 많이 꼽았다.

7일 이상 휴무한다는 기업은 2.7%로, '일감이 나 비용 등 문제보다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른 의무적 휴무 실시' (53.3%)가 주된 사유를 차지했다.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기업 비중은 62.6%로 지난해(64.1%)보다 소폭 감소했다. 300인 이상 기업(70.9%)이 300인 미만(61.5%)보다 비율이 높았다.

상여금 지급 방식은 '정기상여금으로만 지급' (63.6%)이 가장 많았고, '별도상여금만 지급'은

32.0%, '정기상여금 및 별도상여금 동시 지급'은 4.4%였다. 별도상여금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돼 정기 지급되는 상여금이 아니라 사업주 재량으로 별도 지급하는 상여금이다.

별도 추석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기업들은 지급 수준에 대해 '작년과 비슷' (87.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작년보다 많이 지급'은 7.6%, '작년보다 적게 지급'은 4.5%였다.

올해 연간 경영실적(영업이익) 전망에 관한 질문에는 '작년보다 악화'가 4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34.6%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했고 '개선될 것'은 20.5%였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고금리·고환율·고물가에 기업 파산 1000건 돌파

## 올 8월까지 법인 파산 신청 전년보다 54% 급증

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 환경이 지속하면서 올해 8월까지 기업 파산 신청이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전체 신청 건수를 넘긴 수치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접수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034건이었다.

이는 작년 동기(652건) 대비 54% 급증한 수치다. 지난해 연간 건수(1004건)보다도 많고,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2020년

1069건에 육박했다.

특히 올해 7월(146건)과 8월(164건)에는 연속해서 월별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코로나19 이후 피해에서 회복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지속된 금리 인상과 고환율, 고물가 등에 타격을 받으면서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라 통화정책 긴축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의 대출 상환 능력도 약화될 것이라 우려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41%로 전월(0.37%)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2%로 같은 기간 0.01%포인트 상승했고 중소기업대출은 0.06%포인트 오른 0.49%였다.

오기형 의원은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가계뿐만 아니라 기업도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채무상환이 어려운 한계기업이나 취약 차주의 증가가 내수경기 위축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경기 '상저하고' 주장만 되풀이하지 말고 경제 전반 상황을 엄중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기용 기자 pboxer@연남뉴스



# 중기중앙회 '소외이웃에 한가위 사랑나눔'

## 복지시설 4곳에 800인분 명절음식 키트 전달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회장 임경준)는 21일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지역 복지시설 4곳에 800명분의 명절음식 키트를 전달했다.

이번 명절음식 키트는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대표 및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해 온 사랑나눔 재단 후원금을 통해 마련됐다. 지역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의 사회적 봉사 참여를 위해 추진됐다.

이날 마련된 800인분의 명절음식 키트는 광주

서구시니어클럽, 서남지역아동센터, 브니엘지역아동센터, 어린엄마동지 등 광주·전남지역 내 복지시설에 각각 전달된다.

임경준 회장은 "이번 명절은 어려운 경제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 관한 사랑과 관심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하며 "중소기업계의 작지만 따뜻한 사랑나눔으로 우리 이웃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힘이 되도록 후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추석, 선물보다 용돈

## KB국민카드, 고객 420명 설문

올해 추석을 맞이해 부모님에게 선물보다는 용돈을 준비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돈 금액은 10만~30만원을 준비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KB국민카드는 고객 패널 420명을 대상으로 황금연휴 기간 일정과 선물 준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추석을 맞이해 용돈이나 선물 준비 계획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 91%였다. 이중 용돈을 준비하겠다는 응답이 78%로 선물(43%)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금액대별로는 부모님 1명에게 용돈(현금·상품권)으로 10만원 미만을 드린다고 응답한 고객이 7%, 10만~30만원 미만인 74%, 30만~50만원 미만인 15%, 50만원 이상이 4%였다.

추석에 준비할 선물에 대한 설문에서는 식품류가 77%, 화장품 12%, 의류 및 잡화 10% 순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 기간 가족과 친척집에 방문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는 64%, 명절음식을 준비한다는 응답자는 68%였다.

명절 음식으로 시중에 판매하는 음식을 구매하겠다는 응답자는 80%에 달했다. 구매할 음식의 종류는 전(58%), 떡(51%), 고기(22%), 나물(13%), 식혜 등의 음료(12%), 생선(10%) 순으로 나타났다.

/연남뉴스



# 광주은행, 추석맞이 31보병사단에 위문금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21일 제 31보병사단을 찾아 위문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추석을 앞두고 국토 방호와 대민지원에 헌신하고 있는 군 장병들을 위로했다.

광주은행은 매년 명절에 앞서 제 31보병사단을 방문해 군 장병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언제나 지역의 국토방위에 힘쓰는 항토부대 장병 여러분 덕분에 추석 명절에도 지역민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음에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광주은행 또한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및 금융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국세청, 모범 납세자 초청 소통의 시간

## 기업 경영 애로 등 청취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지난 20일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를 초청해 기업 챔피언스필드 경기장 4층에서 간담회 및 세정홍보 행사(사진)를 진행했다.

양동구 청장은 성실납세와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한 공으로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를 대표해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 기업 경영에 따른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 모범납세자 우대사항과 세금포인트 및 국선대리인 제도, 근로장려금, 소득자료 파악 확대, 적극행정 등 납세자에게 유용한 내용 위주의 세정홍보도 실시했다.

아름다운납세자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력

기산업 박흥석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나눔문화를 꾸준히 실천해 고객에게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동구 청장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14.97 (-44.77)
↓ 코스닥	860.68 (-22.04)
↑ 금리(국고채 3년)	3.930 (+0.040)
↑ 환율(USD)	1339.70 (+9.60)